

[러시아, 2013년 4월] [농식품]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러시아, 에코식품 부문 형성단계

러시아에서 유기농제품 부문은 아직 형성단계에 놓여있음. 에코식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공급되고 있고, 이러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기농 토지가 농지의 2%에서 10-12%까지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에서는 유기농 토지로 2011-2012년간 약 57천 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사용되었음

2002-2008년간 러시아에서 유기농(에코)제품의 판매는 약 20배 증가함. 하지만 2009년에 경제위기는 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평균 20%가량 판매가 감소됨. 판매 감소의 다른 원인으로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식품 및 음료의 막대한 비중이 해외(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들,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이미 높은 가격이 루블 약화로 인해 현저히 인상되었기 때문임

이와 같은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예외는 유기농 어린이식품이었음. 어린이식품의 모든 유기농 카테고리는 2009년에도 물량 및 금액 면에서 성장을 보여주었음. 대다수 러시아 부모님들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어린이식품에 더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음.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에 안전하고 유용하기 때문임

▶ 러시아 씨감자 및 식용감자 반입규정

봄철이 도래하면서 해외에서 러시아연방영토로 반입되는 시존 규제제품(씨감자 및 식용감자 포함)의 수량이 증가함. 감자는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그룹에 속함

‘러시아연방영토로의 규제제품 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시 식물검역보장규정’에 의하면,

-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유해검역생물체에 감염된 식물성제품(씨감자 및 식용감자 포함)을 러시아연방영토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러시아연방영토 통과지점들에서 감자 로트는 동반하는 식물위생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육안검사를 받게 됨
- 감자 괴경은 검사, 선별(샘플링), 샘플감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함
- 실험실 식물위생감정조사 결과를 수령하기 전까지 용도별로 들어온 제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감정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규제물질은 유해검역생물체가 확산될 수 없는 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함
- 종자(씨) 및 번식 목적으로 러시아연방영토로 반입된 감자는 실제 종자, Solanum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들의 괴경(주로 S.tuberosum), 미니괴경(minituber)(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츠(microplants)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츠(조직배양에서 Solanum spp.를 함유하는 미소괴경(microtuber)을 포함하는 식물들)를 포함함. 상기 언급되지 않은 번식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는줄기 형성 종들, 덩이뿌리 형성 종들 혹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할 수 있음
- 반입되는 씨감자 및 식용감자 로트는 새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 씨감자 및 식용감자 로트에서 토양의 존재는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토양이 허용됨
- 분화류 식물과 폐쇄뿌리체계(closed root system) 식물은 유해검역생물체가 없는 영양분기질(nutritious substrate)에 심어 러시아연방영토로 반입되어야 함
- 유해검역생물체가 발견된 반입된 감자 로트는 소독 처리되어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 혹은 폐기 처분됨
- 씨감자는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균·세균·바이러스·선충의 병원균이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러시아연방 종자법에 의하면, 반입된 씨감자 품종에 대한 서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반입된 종자재료의 품종 및 파종 품질을 증명해주는 것임. 따라서 종자의 파종품질, 품종에 관한 필수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반입된 품종들은 사용 허가받은 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에 들어가야 함.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지 않고서 식용 목적으로 승객의 수하물과 핸드캐리, 우편발송으로 씨감자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2013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러시아연방영토로 씨감자 반입 한시적 제한조치가 발효될 예정임. 2013년 6월 1일 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에서 발송된 씨감자는 러시아 및 국제 식물위생요건에 일치하는 조건 하에 식물위생검역관리 결과에 따라 러시아연방영토로 반입되게 됨

▶ 인도산 쌀 반입 한시적 제한 도입

인도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서 러시아영토에 부재하면서 러시아에서 검역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Ev.*) 검출과 국제 및 러시아 식물위생요건을 수차례 위반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러시아동식물검역국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인도에서 러시아로 쌀, 땅콩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다른 국가들의 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한 채 3국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인도산 쌀, 땅콩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함

2013년 2월 19일까지 쌀, 땅콩의 러시아 반입은 이 제품들이 러시아 및 국제 식물위생요건에 일치하는 조건 하에 의무적인 실험실 감정조사를 실시하여 식물위생검역관리 결과에 따라 실현됨

▶ 러시아 농업부, 곡물 수입관세율 폐지하지 않을 듯

러시아연방 농업부는 곡물 수입관세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일리아 쉘스타코프 차관이 '러시아 경제부문의 WTO 조건에의 적응과 경제성장의 드라이버로서 무역' 컨퍼런스에서 밝힘. 제로관세율 결정 채택은 이제 그 어떤 본질적인 결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차관이 지적함. 만약 관세율 폐지 결정이 채택된다면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가적인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임. 이를 고려할 시에 관세율 폐지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명함

상기하자면, 농업부 장관이 2월 20일 밝힌 바로는 2013년 7월 1일 전까지 곡물 수입관세율 폐지에 관한 결정안이 향후 2주 내에 관세요금·비관세규제·대외무역보호조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관세율 폐지는 아직 한시적 조치로서 심의됨

농업부는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곡물 관세율 폐지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자국 농업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밀, 호밀, 옥수수, 기타 작물의 제로 수입관세율을 제안함. 작년 가뭄으로 인해 이들은 해외에서 부가적으로 곡물을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전에 러시아연방 부총리는 곡물 수입관세율이 이미 현행 분기에 취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행 곡물 수입관세율은 5%임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년 1-2월간 러시아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액은 약 6,059,316천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

- 수입상대국이 비CIS국의 경우, 가금육 수입량 1.7배 증가, 치즈 및 커티지치즈 21.9% 증가, 감귤류 13.8% 증가, 신선 및 냉동육 수입량 전년 동기 수준 유지

□ 면류

- 2010년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면류시장규모는 3년 연속 성장하고 있음. 2010-2012년간 성장률은 4.2%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음. 2012년에 면류시장은 물량기준 3.8% 성장함. 2012년 러시아 면류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27천 톤 증가함. 시장의 대부분은 자국산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비중 약 80%). 수입산 비중은 20%에 불과함
- 러시아상점에서는 14개국에서 들어온 에그누들이 판매되고 있음. 2012년에 6개국(우크라이나, 독일,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체코)산 제품은 물량기준 러시아 에그누들 수입규모의 93%를 차

지향.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 면류시장에서 수입산 제품 규모는 2016년에 25.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청량음료

- 2008-2012년간 러시아시장에서 청량음료 공급은 25.2% 증가함. 공급의 상당부분은 국내생산으로 충당됨. 이 시기 공급구조에서 국내 제품생산 비중은 86.4%로 집계됨. 반면, 수입산 청량음료 공급은 평균 1.2%에 불과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청량음료는 레모네이드와 콜라임. 2008-2012년간 수입규모에서 평균비중은 79.1%를 차지함. 청량음료 중에서 이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보다 우위를 보이는 이유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레모네이드와 콜라가 잘 알려져 있고 유행하기 때문임. 냉차(cold tea)와 밀크음료와 같은 청량음료는 러시아 대다수 지역들에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큰 수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시장에서 청량음료는 거의 모두 국내유통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2008-2012년간 수출 비중은 수요의 1% 미만임.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수요 구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소시지

- 2012년 상반기 러시아 소시지류시장규모는 물량기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함. 러시아 소시지류시장구조에서 실제 거의 모든 제품이 자국생산품임. 2007-2012년간 시장구조에서 자국산과 수입산의 비중 변화는 별로 크지 않음
- 러시아에서 소시지류 수입과 수출은 국내생산규모보다 적은 규모임. 소시지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물량기준 2008년과 2010년에 수입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12년 상반기에 소시지 수입규모는 2배 증가함. 주요 수입상대국은 벨라루시이며 수입산 소시지의 70%를 차지함. 이외에 미국, 네덜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스페인 등이 있음

□ 설탕

- 2012년 8개월간 수입산의 비중은 3%에 불과함. 이 시기 설탕 수입규모의 급감원인은 2011년에 러시아 국내의 사탕무(비트)를 원료로 하는 설탕생산 지표가 기록적으로 높았기 때문임. 2012년 1-8월간 수입지표는 전년동기대비 80% 이상 감소됨
- 러시아 설탕수입에서 조당(원료당)이 우위를 차지하며 수입구조에서 조당의 비중은 물량기준 90%에 달함. 수입되는 그 나머지 부분은 기타 설탕이 차지하며, 이 제품은 최종소비자용으로 가공산업에서 사용될 수 없고 바로 소매판매 가능한 것임
- 설탕은 주로 브라질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며, 브라질의 비중은 수입총규모(물량기준)에서 78%를 차지함. 브라질은 러시아시장으로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만을 공급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벨라루시, 태국 순을 보임

□ 미니머핀

- 2012년 러시아 과자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물량기준 3.3백만 톤으로 집계됨. 과자시장 세그먼트 중의 하나로 머핀시장이 있으며 그 하위 세그먼트로 미니머핀이 분류됨
- 러시아 미니머핀시장의 85%는 자국생산자들 제품이 차지함. 2011년 미니머핀 시장규모는 470톤으로 집계됨. 2012년 대러 미니머핀 수입구조(물량기준)를 살펴보면, 리투아니아에서 생산된 머핀이 우위를 차지함(미니머핀 수입규모의 23.7%). 러시아의 미니머핀 수출규모는 수입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대러 미니머핀 수입규모(냉동미니머핀 제외)는 2012년에 물량기준 30.6톤으로 집계됨. 미니머핀 시장의 90% 이상이 꾸러미포장으로 포장된 제품이며, 약 5%가 개별포장으로 포장된 미니머핀임

< 품목 수입통계 >

(단위 : 천톤, %)

품목	2013년 1-2월 누계		2013년 2월 당월			참조	
	물량	전년동기 대비(%)	물량	전년동월 대비(%)	동년전월 대비(%)	'12.1-2/'11.1-2	'12.2/'11.2

신선·냉동육	136	99.2	77.7	90.9	134.3	80.5	81.5
신선·냉동돈육	66.6	92.4	39.1	86.8	142	86.2	89.6
신선·냉동가금육	56.3	145.9	30.4	121.8	117.8	124.8	150.1
우유와 비농축크림	20.1	58.6	6.7	39.2	50.3	110.6	116.7
우유와 농축크림	15.1	67.5	8.4	69.1	125	68.6	70
그중: 건조우유	12	128	6.3	111.2	110.3	47.8	50.3
버터	15.9	112.2	6.3	74.3	66.6	74.4	86.1
치즈와 커티치즈	53.5	110.6	28	100.1	109.8	82.3	83.7
신선 혹은 냉장 감자	20.8	82.2	14.3	84.7	2.2배	6.2	7.4
신선 혹은 냉장 토마토	116	120.7	63.5	127.3	120.4	125.1	121.3
신선 혹은 냉장 양파, 마늘	27.9	144.3	16.8	138.4	150.6	36.4	36.1
양배추	34.2	133.1	19.6	138.3	135.9	32.3	32.5
신선 혹은 냉장 오이류	53.7	112.3	23.9	122	80.6	105.9	99.8
신선 혹은 건조 바나나(플랜틴 포함)	240	117.8	123	125.4	105.6	112	111.5
신선 혹은 건조 오렌지	133	130	79	121.6	146	86.1	108.9
신선 혹은 건조 귤(맨더린),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226	102.5	98.4	86.5	77.3	114.9	162.5
신선 포도	33.2	111.7	17	120.4	104.8	139	131.5
신선 사과	305	113.5	149	103.7	96.1	112.6	111.8
옥수수	16.8	131.8	12.4	167.5	2.8배	95.9	74
팥유	117	114.8	59.5	95.4	103	93.5	155.5
해바라기씨유	0.3	46.8	0.3	58.4	5.3배	1.8	2
야자(코프라)유, 팥유 혹은 바바수유	11.1	99.6	3.7	84	49.9	68.6	48.7
조당	99.7	...	41.6	...	71.5	1.3	4.3

자료원: 연방통계청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분유(분말연유)

- 2009-2012년간 러시아에서 분유(분말연유) 소매판매는 매년 성장함. 이시기 판매 매출총액은 570억 루블 증가하였고 성장률은 32.4%를 기록함. 2012년 한해에만 성장률은 전년대비 16.1%를 보이며 판매규모는 233억 루블까지 올라감
- 연방수준에서 분유(분말연유) 소매판매구조는 다음과 같음: 2012년에 중앙연방관구에서 주로 판매됨. 그 다음으로 우랄연방관구(17.2p% 뒤처짐), 볼가연방관구 순을 보임. 이 3개 관구에서의 판매규모는 러시아 전체 분유판매규모의 68%를 차지함
- 분유 소매판매 지역구조에서는 변화가 있음. 모스크바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월등히 더 판매됨. 튜멘 주의 비중은 10%를 넘어섰고, 모스크바 주의 경우 7.3%를 기록함. 스페르들롭스크 주와 한트-만시스크자치구의 경우 2012년 판매규모가 동일함

□ 소스

- 2008-2012년간 CIS국들에서 소스판매는 성장했으며 2012년 CIS 소스판매량은 2.39백만 톤을 기록

향. 분석가들 평가에 따르면, 2013-2017년간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는 2.65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CIS 총판매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이며,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임. CIS에서 가장 인기 높은 소스는 마요네즈와 사우어크림임. 2008-2012년간 마요네즈의 비중은 모든 소스 종류 판매의 평균 47%를 차지하며 사우어크림의 비중은 평균 32%임

- CIS국들은 주로 자체생산제품을 소비하고 있음. 2008-2012년간 생산규모는 매년 증가했고 2012년에 2.37백만 톤으로 집계됨. 이시기 주요생산국은 러시아였음(2012년 점유율 71%). 2013-2017년간 생산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 2.62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CIS국으로의 소스 수입은 0.31백만 톤으로 집계되며 이는 2008년 지표를 넘어선 것임. 수입 지표 감소는 2009년에만 나타났고 전년대비 14% 감소함. 2008-2012년간 가장 높은 수입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에 13.4천 톤을 기록함. 이에 반해, 벨라루시, 타지키스탄, 러시아에서는 수입공급규모가 감소됨. 2008-2012년간 수입 측면에서 가장 비싼 소스는 사우어크림, 겨자, 샐러드드레싱, 세컨드 디시용 조제소스임
- 2008-2012년간 CIS국에서의 소스 수출은 증가하였고 2012년에 0.15백만 톤으로 집계됨. 60% 이상은 러시아 차지이며, 그 다음 우크라이나(27-30%) 순을 보임. 가장 많이 수출된 소스는 마요네즈, 케첩, 토마토소스임

□ 마요네즈

- 2012년 CIS국들에서 마요네즈 판매는 1백만 톤으로 2008년 지표보다 2.7% 증가한 것임. 2013-2017년에는 매년 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8-2012년간 CIS국들에서 마요네즈 생산은 37.6천 톤(3.8%) 성장함. 향후 5년간 마요네즈 생산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에 1.1백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마요네즈 생산에서 리더는 러시아이며 2012년 CIS 마요네즈 총생산의 75.8%를 차지함
- 대다수 CIS국들에서 국내생산만으로도 마요네즈 수요는 거의 완전히 충족되고 있음. 2008-2012년간 수입산 마요네즈는 평균 7.7% 정도에 불과함. 2008-2012년간 CIS국의 마요네즈 수입동향은 불안정하며 2011년에 최고치를 보임(86.3천 톤). 이 시기 CIS국 중에서 주요 마요네즈 수입국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임

□ 채소주스

- 2009-2012년간 러시아 채소주스 생산은 다양한 추세를 보이며 발전함. 2010년에 채소주스 출하규모가 현저히 성장하고 그 다음해엔 감소한 후에 그다음 또다시 출하규모 성장 추세가 나타남. 이와 같은 변동은 토마토주스, 기타 채소주스 및 과일주스, 혼합주스에서 나타남
- 벡타(채소음료) 생산에서는 상황이 달랐음. 2008년 벡타생산규모의 급증 이후 2011년까지 연속으로 시장 공급 하락세를 보임. 이 시기에 생산은 8배 감소함. 자국산 채소음료 출하는 오직 2012년에만 플러스 움직임을 보임. 생산규모 성장률은 5.9%를 기록함
- 벡타 생산규모의 97% 이상은 3개 연방관구-북서, 중앙, 남부연방관구에 집중되어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채소음료 생산 리더는 레닌그라드 주, 리페츠크 주,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임. 2012년에 이 지역들에서 자국산 제품의 92% 이상이 출하됨

□ 토마토주스

- 토마토주스는 러시아 채소주스시장의 성장 드라이버라 할 수 있는데, 채소주스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함. 2012년에 토마토주스의 비중은 이미 채소주스시장의 약 95%를 차지함. 그 이유는 러시아 주민들이 다른 채소주스류보다 토마토주스를 절대적으로 선호하여 소비하기 때문임
- 2010-2012년간 해당시장은 2011년 소폭 감소 이외에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추세를 보임. 토마토주스시장에서는 자국생산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미미한 수입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토마토주스시장의 수입의존성은 아직 높음. 공급은 많은 면에서 중국,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주스농축액 수입에 의존하며, 이러한 수입산 농축액으로 러시아에서 토마토주스가 생산되고 있음. 러시아의 WTO가입은 원료공급 불균형을 제거해줄 잠재력을 증가시키며 원료 수출국의 지리적 폭도 확대시켜 줄 것임

4. 동향 분석 [토마토]

□ 생산동향

- 최근 3년간 전 세계 토마토 시장규모는 약 150-160백만 톤으로 집계됨.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급증으로 인해 재배에 더 박차를 가하였고 현재 전 세계 토마토 종류는 10,000가지가 존재함. FAO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재배 면적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토마토이며 전 세계 토마토 재배면적은 약 4백만 헥타르로 집계되며 전면적의 60%는 온실재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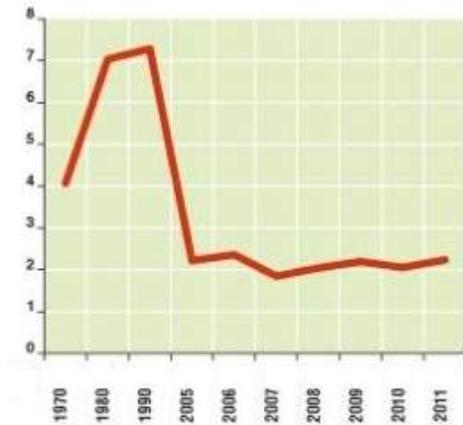
< 국가별 토마토 재배 면적 비교 >

구분	중국	인도	터키	이집트	미국	러시아
면적(천 ha)	974	520	225	180	177	140

자료원 : FAOSTAT

- 러시아는 토마토 재배면적에서 세계 6위, 토마토 생산에서 12위를 차지함. 2011년 러시아에서는 약 2.4백만 톤의 토마토가 재배됨. 토마토 생산규모는 현재 20년 전보다 약 3배가량 낮음
- 러시아에서는 자영농이 토마토 수확량의 약 90%를 수확하고 있음. 러시아에서 산업적 방법으로는 노지, 온실(비닐, 겨울철 유리 혹은 플라스틱온실)에서 재배됨
 - 자국산 토마토의 대부분은 자영농 및 개인부업농의 노지와 봄철온실에서 재배되며, 주로 개인소비 용도임
 - 판매용 온실 토마토의 대부분은 산업용 온실에서 재배됨. 개인은 봄철 및 여름철 온실과 비닐온실을 이용하며 노지 수확보다 2-3주 일찍 수확하게 됨. 하지만 추운시기에 온실 토마토는 산업적 방법으로 재배됨. 토마토 생산면적에서 온실의 비중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음. 산업온실 1.8천 헥타르에서 15-20%는 겨울-봄철용이며 70-80%는 여름-가을철용임

< 러시아 신선 토마토 생산량 (백만톤) >



< 생산자 유형별 토마토 생산 (천톤) >



자료원 : 테크놀러지 로스타

- 남부 및 북부-카프카즈연방관구의 산업온실은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토마토 재배에 집중되어 있음. 2011년에 수확된 러시아 남부 온실 채소류 수확의 절반가량은 러시아에 많이 보급되지 않은 품종들(레드체리, 옐로우체리, 자두모양의 토마토, 분홍토마토, 비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들이 선보여졌음. 중앙연방관구와 볼가연방관구의 산업온실에서 온실작물 중 토마토의 비중은 약 2배가량 낮은 편임. 북서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에서 85-90%는 오이가 차지함
- 지역 간에 신선토마토는 러시아 남부에서부터 북부 및 동부지역으로 재분배되고 있음. 국내 신선 토마토 산업적 생산의 러시아평균지표는 연간 일인당 1.64kg으로 집계되며, 이는 국내 수요시장

을 충족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함

□ 소비동향

- 여름철에 러시아 주민들은 신선야채류를 본인 소유의 근교 다차(별장)에서 직접 재배하여 소비하거나 시장, 마트 등에서 구입하기도 하며, 직접 재배가 힘든 추운 시기에는 거의 모두 구입해서 사용함. 신선야채류는 제철 자국산이 품질 및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
- 토마토는 주로 신선한 상태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메인 디시용 소스 및 사이드 디시에 첨가하기도 함(오븐요리, 스투 등)

□ 수입동향

- 자국내 신선토마토 부족은 수입생산자들이 채우고 있음. 일 년 중 추운 시기에 해외 채소류가 우위를 차지함. 러시아 온실채소류시장은 수입산 공급과잉상태이며, 2000-2010년간 온실채소류 수입규모는 300% 이상 성장함. 2006년부터 시작하여 수입성장률은 자국 생산성장률을 월등히 앞지르고 있음
- 겨울-봄철 시기에 수입산 토마토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시장의 95%까지 차지하고 있음. 2011년에 공식루트(러시아세관)로 들어온 신선토마토 수입은 755천 톤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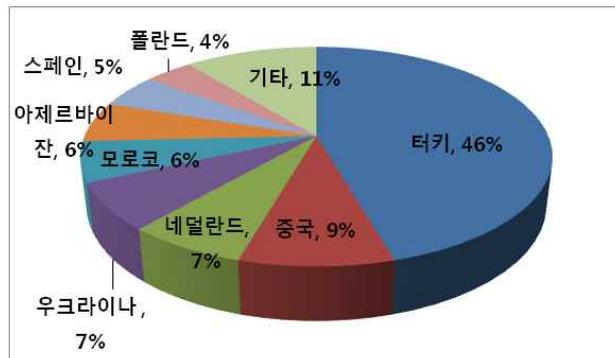
< 2009-2012년 러시아 신선토마토 수입 >

구분	2009	2010	2011	2012년 1-9월
수입량(천톤)	648.2	717	755.4	609.1

자료원 : 테크놀러지 로스타

- 2012년에 눈에 띄는 트렌드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신선토마토의 점진적인 가격인하와 이와 동시에 수입규모 성장률 감소임
- 대러 신선토마토 수입상대국들 중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터키이며 전체 토마토 수입의 45~50%까지 차지함. 터키산 토마토의 장점은 낮은 가격과 연중 사시사철 안정적인 공급가능성임

< 2012년 국가별 대러 신선토마토 수입량 구조(%) >



자료원 : 테크놀러지 로스타 (*신선토마토 HS코드 070200)

< 2012년 수입업체별 공급규모 >

업체명	물량(천톤)	금액(천달러)	점유율(%)	수입평균가(달러/톤)
유한책임회사 아이스 겔락시	1.26	441	0.69	350
유한책임회사 유통회사 미라토르그	24.5	143,280.9	11.54	5,848.2
유한책임회사 인베스트 자파드	74.44	120,907.92	3.20	1,624.23

유한책임회사 프로우젠푸드	1.46	2,685.85	3.63	14,789.14
유한책임회사 옵티카 프로젠 푸드	13.79	203,942.23	29.18	14,789.14
유한책임회사 보스토크-자파드	137.59	78,427.44	1.12	570.01
유한책임회사 로스프로дук트	160	3,670,000	45.26	22,937.5
폐쇄주식회사 트란스파렌트 월드 트레이드	38.12	103,705.43	5.37	2,720.5

자료원: 알리양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 지역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앙지역으로 물량기준 35.46%, 금액기준 84.89%가 수입되고 있음

< 2012년 러시아 지역별 수입현황 >

구분	물량(천톤)	점유율(%)	금액(달러)	점유율(%)
모스크바 주	291.16	64.54	653,390.77	15.11
로스토프 주	160	35.46	3,670,000	84.89

자료원: 알리양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 유통현황

- 토마토는 시장, 키오스크,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식료품점(프로дук트),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에서는 랩으로 깔끔하게 중량 포장되어 있거나 혹은 직접 날개로 골라 무게를 재어 구매함

□ 시사점

- 러시아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신선토마토 수입이 불가피하며, 러시아로 대량 반입되는 수입산 신선채소류로 인해 러시아 국내 온실 채소재배업 발전이 더딤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